



「대전중부권,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다」 세미나 개최

- '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공통적 가치관의 탐색 -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의장 이창기)는 2012년 5월 21일(월) 계룡스파텔에서 “대전 중부권,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와 원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시안전 디자인 포럼과 제주대 아시아공동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중부권의 리더도시인 대전이 글로벌 융복합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시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중부권에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될 아시아에서 중부권이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전광역시발전협의회 위원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의 “중부권메갈로폴리스와 아시아 공동체 구축전략”,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여선 교수의 “아시아 공동체와 제주특별 자치도-대전중부권 허브화를 위한 시사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의 “제주해역의 해로보호와 동북아 해양협력”이라는 3개의 주제발표, 그리고 이어 ㈜아름디온세상 신천식 회장의 사회로 ㈜시티미디어 조충연 대표이사, 대전발전연구원 임성복 기획조정실장, 한밭대학교 류덕위 교수, 중부대학교 양우창 교수, 청강축사사무소 정선주 소장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은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될 아시아의 공동체 형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고 규모가 다양하므로 아시아를 리드할 동북아 국가부터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한·중·일 3국은 유교문화권으로서 공통의 사회적 규범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해당, 아시아를 이끌기에 적합한 주체들이다. 이제 지구적 위기상황 아래에서 ‘아시아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3국의 지도층이 나서야 한다. 이때 아시아공동체구성을 위한 부문별 협력방안은 문화관광으로부터 과학기술, 경제, 교육, 복지,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로의 특장을 살려 협력해 나갈 수 있고, 이를 위해 동북아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 양성과정을 설치해 공동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제주대학교의 김여선 교수는 “대전은 국내 행정중심도시, 교통중심지이며,

국내 최고 연구기관과 연구인력, 국내 최고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으로, 허브화에 가장 적합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나 도시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부권 일대를 아시아의 허브화를 위한 ‘중부권개발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 추진방안인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의 김부찬 교수는 “삼면이바다인 우리나라에 있어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력 제고와 국가안보를 위한 해양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해로의 안전과 통항로 확보문제는 절대적인 과제이며, 동북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를 연결하는 동북아 해로는 경제적·군사적·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본·중국·대만·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과도한 해상 군사력 증강 경쟁을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협력적 해양안보 체제의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력과 국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조성 자문회의 ”

-안병만 前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청-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5월 15일(화)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안병만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초청하여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조성’에 관하여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중부권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인접한 도시간의 상생발전 방법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수탁과제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고견과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갖고자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안병만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중부권 메갈로 폴리스 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부권 핵심도시인 대전에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에 큰 감명을받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기존 우리나라는 X축 중심의 국토구조 형성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를 이어지는 축이 대체적으로 소외되었다”면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를 구상하는데 있어, 밑으로는 전주, 광주, 목포 위로는 충주, 원주까지 아우르는 범위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충청권의 공동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j

“ ‘여성친화도시’ 관련 기획대담 ”

-대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응방안 및 점검-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5월 24일(목) 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여성 친화도시로서 아직 미흡한 대전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대전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필요한 준비전략 등에 대해서 각 기관 여성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아이디어를 얻고자 기획대담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획대담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 주혜진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의 진행으로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영주 서울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미경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오미란 사무총장은 “광주와 대전이 인구규모, 면적, 구획 등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광주가 여성친화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체장 마인드, 의회, 행정 이 삼박자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이 원동력 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전이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미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여성 친화도시에서는 젠더 거버넌스 역할이

광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광주의 경우는 오랫동안 축적된 젠더거버넌스, 내적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면 대전이 광주의 사례와 내적인 인프라를 비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영주 실장은 대전시가 진정한 여성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대전시민의 여성친화도시 컨셉을 만든 후 각 자치구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여러 여성친화도시들의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j



“ 2012년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 개최 ”

-가족구성원 간 소통 지원 정책의 모색-소통을 꿈꾸는 가족 I-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 5월 31일(목) 15시 대전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에서 가족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지역가족복지 활동가, 가족관련 기관 종사자, 교수, 연구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하였다.

2012년 제1차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가족구성원 간 소통 지원 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성옥(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교수의 주제발표 후에 정현주(이라상담연구소)소장과 최은희(충남여성정책개발원 복지정책팀)연구위원의 지정토론과 포럼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전광역시의가족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가족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가족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새로운 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대전시가 앞으로 가족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성옥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가족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새로운 가족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이번 포럼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혜진 센터장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포럼은 시리즈로 기획돼 오는 10월까지 총 3회가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가족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포럼은 시리즈로 기획되어, 오는 10월까지 총 3회가 예정되어 있다. 포럼 문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50)로 할 수 있다. j



“ 공주시 공공자전거 시승식 ”

2012년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공주시청 앞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과 공주시 관계공무원및 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 연구원 등과 함께 공주시 공공자전거 시승식을 가졌다.

지식경제부 광역경제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되었으며, 국비 2억, 충남 도비 1억, 공주 시비 1억 등 총 4억의 사업비를 통하여 공주시 웅진동 한옥마을 외 10개소에 120대의 자전거를 설치하는사업이다.

공주시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자전거대여소가 이번 사업을 통해 3개소(자전거 수 30대)에서 11개소로 확대되면서 전체 자전거이용객의 수가 2.6배

정도 늘었으며, 금강변 둔치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성되면서 평일 저녁 및 주말에는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공주시청에서 산성시장까지 약 1.5km를직접 공공자전거 타고 이동하였으며, 시승식에서 이준원 공주시장은 “앞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세에 발맞추어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맞는 인프라 조성도 추진할것” 이라고 하였으며,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공주는백제의 고도로 대전시와 세종시 등 메트로폴리탄의 역사, 문화, 관광의 배후도시로서 주말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로서 거점도시와 연결하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금강변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다면 경북 상주와 더불어 자전거 도시로써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j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통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기희

1 들어가는 말

벤처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본, 금융부문의 발전 등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의 양상은 과거 국가 및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였던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경제가 짊어져야 할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벤처기업의 M&A를 통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대기업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성장엔진, 최첨단 원천기술을 통한 시장의 확대 등 확장전략에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도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구사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원고는 대전지역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다양한 산·학·연·관에서 활발하게 보육·창업되고 있는 전도 유망한 벤처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는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실태를 방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M&A (기업인수 및 합병 : Merger and Acquisition)

M&A란 독립된 기업을 인적, 물적, 자본적으로 결합하여 동일한 관리체제 하에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취득을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합병이 결합된 것이다.

M&A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 **효율성 이론 (efficiency theories)**: M&A를 통해 대상기업 (target firm)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달성함으로써 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 **대리인 이론**: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인 (principal)이라면,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진을 주인에게서 경영을 위임 받은 대리인 (agent)이라고 한다. 이처럼 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경영함으로써 생겨나는 추가적인 비용을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이라 하는데, M&A 위험의 존재는 경영진의 활동을 유효하게 함으로써 주주가 지불하게 될 대리인 비용을 낮추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 **허bris (Hubris)**: M&A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보다 인수기업 경영자들의 자만심 등 낙관적인 사고에 기초해 M&A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을 지불하게 되고 M&A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라고도 불린다.

- **처분가능한 현금흐름 이론 (free cash flow)**: 처분가능한 현금흐름이 많고 마땅한 투자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이론**: 유사업종 기업을 인수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시장점유율 (market share)을 높일 목적으로 M&A가 행해지는 경우다.
- **세금절약 이론**: 기업들이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M&A의 분류

M&A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방법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M&A의 형태와 유형은 크게 지배권 취득방식, 결합형태, 거래의사, 지불수단, 결합주체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 M&A의 분류

구분 기준	세부분류
지배권 취득방식	합병 (merger) / 인수 (acquisition) / 매각 (divestiture)
결합형태	수평적 (horizontal) M&A / 수직적 (vertical) M&A / 혼합적 (conglomerate) M&A
거래의사	우호적 (friendly) M&A / 적대적 (hostile) M&A / 중립적 (neutral) M&A
지불수단	현금인수 / 주식교환인수 (stock swap) /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 복합
결합주체	국내기업간 / 국내기업의 국외기업 / 국외기업의 국내기업 M&A

3 벤처기업의 M&A

벤처기업 M&A의 목적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M&A 시장 참여 동기를 목적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벤처기업들은 다른 업종의 M&A와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수요측면의 네트워크 외부성 강화를 위한 M&A
- 정보비대칭 문제를 보정하기 위한 수직적 통합을 위한 M&A
- 신규사업확장 및 위험분산을 위한 M&A
- 기존의 수익모델 개선 및 수익창출모델 확보를 위한 M&A

벤처기업 M&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농림어업 및 광공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술집약적 산업육성책을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 서비스, 금융 등에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신생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에 M&A는 취약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기업에게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벤처기업에게는 부족한 자본을 공급하며 창업투자회사에게는 자본의 회전을 높여 새로운 벤처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활성화된 M&A 시장은 기업 감시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주주와 시장에서의 기업평가를 의식한 기업 경영을 할 유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한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한 전문경영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경영자들도 대주주 위주의 경영보다는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을 통해 시장에서 자신의 명성을 구축할 유인이 증대한다.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능력 있는 전문경영자의 경영권 획득 기회가 증대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기업가치 증대 가능성이 제고된다.

벤처기업 M&A의 특징

현실적으로 M&A를 수행하는 벤처기업들은 기존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기업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벤처기업은 소수의 뛰어난 인재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기술력과 신속한 시장대응력을 바탕으로 창업된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특정한 부문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최종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과거 전통적인 개념의 기업으로 볼 때, 벤처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특정한 한 부문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인력 및 기재를 구입하여 수행하였으나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이러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기업들은 신규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만이 생존하게 된다. 결국 생존한 기업은 다른 기업과 합병 및 인수를 통하여 더 높은 가치창출을 이루게 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M&A는 인수합병 자체가 기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안에서 지속적인 계속기업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국내 벤처기업의 M&A 동향 및 특징

국내 벤처기업의 M&A 동향

최근 들어 국내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냉각되면서, 자금력 부족으로 생존이 어려워진 벤처기업들의 생존수단으로 그리고 핵심역량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기업간 M&A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의 경영전략으로 M&A를 모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침체와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시작된 2000년부터 과거 지분이득 위주의 M&A보다 시너지효과를 통한 수익성 확보 위주의 M&A가 생존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향후 국내 벤처기업 M&A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애요인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벤처기업의 M&A 유형을 보면, 벤처기업들은 합병, 영업양수 양도, 자산양수양도 등 전통적인 방식의 M&A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식매교환, A&D, 백도어리스팅, 벤처지주 회사 등의 유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신종 M&A 유형은 벤처기업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한 적합한 형태의 M&A 방식으로 i) 현금동원의 최소화, ii) 지속적인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iii) 기존의 상장(등록기업과 M&A를 통한 자동 상장, iv) 신기술의 도입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표 3〉 국내기업의 수단별 M&A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주식취득		임원경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합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997	130	31.1	27	6.5	75	17.9	23	5.5	163	39.0	418
1998	92	18.9	32	6.6	151	31.1	81	16.7	130	26.7	486
1999	146	24.0	42	7.5	145	26.0	111	19.9	113	20.3	557
2000	268	38.1	104	14.8	68	9.7	84	11.9	179	25.5	703
2001	234	36.3	177	27.5	73	11.3	62	9.6	98	15.2	644
2002	215	35.7	143	23.8	65	10.8	78	13.0	101	16.8	602
2003	215	36.5	167	28.4	67	11.4	53	9.0	87	14.8	589
2004	263	35.1	236	31.5	103	13.8	64	8.5	83	11.1	749
2005	295	44.8	138	21.0	110	16.7	73	11.1	42	6.4	658
2006	355	47.7	141	19.0	114	15.3	74	9.9	60	8.1	744
2007	402	46.9	144	16.8	135	15.8	107	12.5	69	8.1	857
2008	216	39.3	80	14.5	93	16.9	73	13.3	88	16.0	550
2009	119	28.8	46	11.1	120	29.1	62	15.0	66	16.0	413
2010	186	37.3	62	12.4	115	23.0	52	10.4	84	16.8	499
합계	3,614		1,570		1,760		1,077		1,787		9,808
평균	180.7		78.5		88.0		53.9		89.4		489.9

* 주: ()는 구성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통계연보.

국내 벤처기업의 M&A가 가지는 의미 (5)

국내 벤처기업의 M&A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방안 이외에 안정적인 영업자금의 창출 및 새로운 수익모델의 발굴을 위한 대안이며, 더 나아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M&A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체질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은 회의업체 법정관리업체 등 퇴출 직전의 부실기업처럼 사업부문의 정리, 인력의 퇴출보다는 수익기반 약화, 기술역량 부족, 핵심인력의 부족 등을 보완하는 비즈니스모델의 개선을 의미한다.

둘째, 벤처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으로의 M&A의 필요성이다. 즉 M&A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시장에서의 퇴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수익-고위험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사업성 공률이 낮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독자생존이 더 이상 무의미한 벤처기업이 흡수 합병됨으로써 퇴출경로가 불투명한 벤처시장에서 가치를 덜손상시키는 퇴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가치 증대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모든 분야의 기술을 겸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M&A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여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정책 제언

벤처기업 M&A 활성화 추진방안

M&A가 활성화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M&A활동에 대해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M&A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M&A가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M&A 시장이 매수기업 위주로 비공개적, 비경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합병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이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때문에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M&A 기업들의 완전한 통합을 가로 막음으로써 M&A를 통한 효율성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성공적인 M&A를 위해서는 합병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 주주 사이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분할 및 구조조정 그리고 지배구조개선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보호,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벤처기업 M&A 활성화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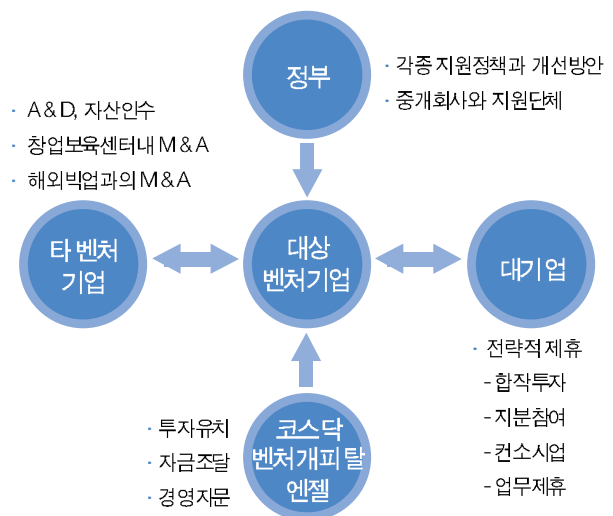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벤처기업 M&A 활성화 관련 이해관계자 주체, 즉 인수기업과 대상기업, 투자자, 자금공급원과 지문기관, 그리고 중개회사와 정부기관과 같은 벤처기업 M&A를 구성하는 주요 환경 요소들 중에서 M&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별 각각에 맞는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주체들은 M&A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객체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작용할 때 M&A의 활성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림 2〉 벤처기업의 M & A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성장단계별 M&A 전략

벤처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M&A모형과 M&A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창업단계는 향후 M&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설계를 하는 시기이다. 주주구성, 사업의 목적, 자본금의 구성 등에서 기업이 성장기로 진입하여 M&A가 잡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 Pre M&A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성장기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의 매출과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산업주기설 또는 경기순환모형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등의 성숙기 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기업들은 어느 순간부터 경영상황이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M&A를 통해 생존과 성숙기 기업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숙단계에 진입 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면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M&A를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2 M&A 추진절차별 전략

M&A 추진절차는 크게 사전준비단계, 본단계, 사후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 준비단계는 위에서 언급한 Pre M&A 전략과 M&A를 추진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체적인 적합도 분석'이다. 왜 M&A를 해야 하는지 M&A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지, 자금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기업에 대한 분석 및 시너지 분석을 통해 M&A의 성과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본단계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실사, 협상, 계약이다.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를 통해 M&A 대상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인수규모 및 자금 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통해 가격을 확정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계약을 하여 M&A의 본단계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

마지막 사후관리단계(PMI: Post Mergor Integrator)는 M&A 이후 통합 및 기업가치 극대화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과 문화이다. M&A를 통해 통합된 기업의 각 사별 조직과 문화를 통합하여 M&A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즉시 통합하여야 하는 부분과 서서히 통합하여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100일 작전 등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인 통합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3 M&A 목적별 전략

M&A 모형은 추진전략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성장형, 유지형, 탈출형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장형 전략은 일반적인 M&A에 해당하며 M&A를 통해 속도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유지형 전략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M&A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 1위에서 밀리면

생존이 불투명해지는 경우에 사활을 걸고 M&A에 집중하게 된다. 탈출형 전략은 한계기업으로 전략하여 도저히 생존이 어려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서 인수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지만 대안이 없으므로 성사를 시켜야 한다. 반면에 성숙기 기업에서 사업아이템이 포화상태인 경우에 새로운 신규사업 진출 또는 사업의 다각화 등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지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의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히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글로벌환경 하에서의 지역의 경제 산업동향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영역의 융합으로 인한 산업범위의 다변화·다양화 및 주기 변화 속도의 가속화는 모든 기술을 혼자 개발할 필요가 없어지는 동시에 단독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각기업의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 및 자사의 거래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오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자사의 기술 및 자산을 매각하는 데에서 오는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끊임 없이 논의 되고 있는 벤처기업 M&A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수 또는 매각활동의 중심에 있는 기술 및 각종 무형 자산은 관련 벤처기업이 가진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핵심기준으로 접근 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기술개발단계부터 그 기술을 완성하여 확장을 통한 사업화 혹은 매각·매수를 통한 자금회수를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각 단계별로 많은 위험 및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본문에서 검토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 M&A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 끝에 지역의 많은 우수한 중견기업이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형성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벤처기업을 시장 중심적이고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의 중심에는 대전지역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하여 수많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중견기업의 육성에 있다. 벤처기업 M&A가 보다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모든 주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 1) 내적 확장(internal expansion)을 위해 매출을 늘려서 자산을 증대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
- 2) 외적 확장(external expansion)을 위해서 기업을 사들이거나 두 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 3) 강천모(2005), 「기업 인수·합병 전략의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1995, 131쪽.
- 4) 이경원, 이광훈, 김민식, 최연철, 신성문(2001),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 유형과 경제적 효과」, KSID 연구보고서, 2001.12.
- 5) 이기연(2006), 「IT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사례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70-71쪽.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생산과 고용, 대외거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가 더는 위축되지 않는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도 소비만 강보합세를 보였을 뿐, 지난달에 이어 생산, 고용, 대외거래 등 대부분의 거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

물가상승률은 지난달의 2.5%에서 2.3%로 낮아져 최근 물가상승률이 6개월째 하락하는 추세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1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경기하강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들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상승국면을 보여 원만한 회복세임.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 등 유럽 재정위기 관련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소비 진작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등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경기종합지수

- 2011년 1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하강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승국면을 보여 원만한 회복세임.

생 산

- 2012년 3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여 지난달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지난 달에 이어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여 호조세임. 향후 생산은 주반도체 등의 재고부담 완화 등으로 개선호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품목 수출감소 등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소 비

- 2012년 3월 민간소비는 전월대비 에너지 소비와 농수산물 거래량, 전년동월대비로는 농수산물 거래량과 유류 및 연탄 소비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호조를 보여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임. 향후 소매판매는 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원만한 개선호름을 이어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은 존재함.

고 용

- 2012년 3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도 하락하여 개선되는 모습이며, 전년 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 또한 하락하여 매우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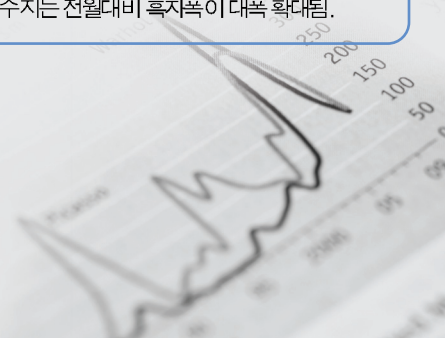
- 2012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서비스 부문에서 상승한 반면, 농수산물과 공업제품 부문에서 하락하여 0.1% 하락 하였음. 물가상승률은 지난달의 2.5%에서 2.3%로 낮아져 최근 물가상승률이 6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임.

금 용

- 2012년 4월,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확대가능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해지면서 국제채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주가가 하락함.

대 외 거 래

- 2012년 3월, 수출은 전월대비 기계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 제품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도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섬유류, 기계류 중심으로 증가함. 전년동월대비로도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한 반면, 수입은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하였음. 무역수지는 전월대비 흑자폭이 대폭 확대됨.



대전발전연구원 6월 행사 안내

01 대전발전 매경포럼

- 주 제: 대한민국 新 중심도시, 과학수도 대전
- 일 시: 2012. 06. 12(화) / 14:00~17:00
-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02 지역상생을 위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지문회의'

- 일 시: 2012. 06. 20(수) / 10:30
- 장 소: 둔산동 오페라웨딩홀